

정치/행정 단신

고성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고성군의회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 2012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인 제21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13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처리한다.
최광호 기자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실시

고성군은 올해 1월부터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생활의 불편함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실시한다.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파손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위치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고내용과 처리현황도 검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봉사과 생활민원팀(680-3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광연 기자

2012 강원대 입학생 모집

2012년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오는 20일까지 고성군 입학생을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신입생을 포함해 향토학사 20명(남 10, 여 10)과 국제생활관 10명(남 5, 여 5)이다.

선발대상은 춘천시 관내 대학교에 2012학년도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중 2011년 1월 1일부터 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소가 고성군에 있거나, 보호자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학생 본인이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http://kangwon.ac.kr/~dorm>) 및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org>)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원광연 기자

박근혜 비대위원장 강원도 방문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춘천을 방문해 축산농가 주민들과 소값 하락 및 구제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한우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어 오후 2시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국회의원과 정문헌 속초-고성-양양당협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당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최광호 기자

산림바이오매스 참여자 모집

18세 이상 고성주민 200명 선발 ... 20일 마감, 31일 1차 발표 후 체력검정

고성군은 이달 20일까지 2012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 참여 근로자 200명을 모집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해 집중적인 산림기술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 고교·대학 재학생,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등은 제한한다.

1차의 서류전형은 1월 31일 발표가 나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100m 달리

기 40초 이내 완주자에 한해 선발하는 2차 체력검정을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 참여기간은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일당은 4만5천원이다. 4대보험 가입, 주휴·월차수당 등이 지급된다. (문의 : 농정산림과 680-3383) 최광호 기자

“설악권에 희망을 불어넣고 싶다”

안종복 예비후보 ‘비상’ 출판기념회



한나라당 안종복 예비후보(전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사장)가 지난 7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스포츠 경영 이야기를 담은 ‘비상, 그라운드에서 다시 쓴 드라마’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채용생 속초시장, 김강수 속초시의 회 의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회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주성 대한축구협회 국제부장(양양 출신), 최순호 전 강원FC 감독, 지지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으며, 허정무 인

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감독, 거스 허딩크 전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 등이 축전을 보내왔다.

안종복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돌아보면 제가 가진 능력보다 저를 더 좋아해 준 선배들과 주변의 많은 고마운 분들 덕분에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미시령고개를 넘을 때마다 가슴에 와 닿는 비릿한 고향 내음, 그 정겨운 고향 내음과 설악산의 포근함을 느끼며 꿈과 추억이 있는 고향, 시련과 아픔이 있는 고향을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안후보는 “하지만 수산자원은 고갈되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금강산관광마저 중단된 고향은 희망과 꿈을 잃어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며 “이제는 제가 받았던 사랑을 고향에 돌려주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설악권에 희망을 불어 넣고 싶다”고 했다.

안후보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지난 7일 열린 ‘비상, 그라운드에서 다시 쓴 드라마’ 출판기념회에서 안종복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의 정열과 작지만 소중한 경험을 잘 조화해 설악권을 문화, 관광,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내 고향으로 변모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송훈석 의원 고성군 한우협회와 간담회

민주통합당 송훈석 국회의 원(속초-고성-양양)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고성군 축산업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고성군 한우협회 이장갑 회장 등 임



원진과 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값 폭락대책 마련을 위한 축산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중인 송훈석 의원은 소값 폭락과 사료가격 폭등을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에 이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축산정책 실패 사례로 언급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도산위기에 처한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호 기자

한나라당 고성협의회 신년인사회



지난 12일 열린 한나라당 고성협의회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떡절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승근 부위원장, 김완식 노인회장, 정문헌 당협위원장, 문명호 군의회 의장, 박효동 도의원, 김영희 여성단체협의회장.

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 당협위원회 고성협의회 신년인사회가 지난 12일 오후 6시 여성회관 식당동에서 정문헌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례에 이어 우수당원 표창 수여, 위원장 신년인사, 떡절단식, 건배제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임진년 새해 건강을 기원하고,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를 다짐했다.
최광호 기자